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수료식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이 지난 4일 산업단지 지원센터 열렸다.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은 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근로 중 의사소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 개설됐다.

지역학습관으로 운영됐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일반학습관으로 지정받아 거점 운영기관인 강원대학교로부터 강사료와 사무용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근로가 끝난 후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없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돼 중도 포기자가 많이 없었다.

수료자는 0~1단계(월, 목) 12명과 2단계(수, 금) 8명으로 총 20명이다.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수료하면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속초해양산업단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학습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양산업단지는 앞으로 5단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한국어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외국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속초해양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속초시 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신청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영월군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만 18세~39세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출퇴근 기간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연간 60회)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은 지역화폐(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와 함께 온라인 접수(www.yw.go.kr/ingu)도 가능하다.

영월군은 그동안 정주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악가뭄' 강릉 수자원 확보 총력...도암댐 활용 논의

정선·영월, 비상 방류에 이견 없어...지휘부, 가뭄 끝날 때까지 2청사 근무



강원특별자치도는 7일 강릉 제2청사에서 도암댐 용수 사용 등 강릉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릉과 20km가량 떨어진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댐의 용수 활용 가능 여부가 테이بل에 올랐다.

도암댐은 1990년 남한강 최상류 송천에 발전을 위해 건설된 댐으로, 대관령 일대 물을 도암댐에 가뒀다가 15.6km 관을 통해 강릉수력발전소에 보내 전기를 생산한 뒤 강릉시를 관통하는 남대천에 흘려보내는 방식

의 유역변경식 발전이 2000년대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도암댐 물에 고지대 목장의 가축 분뇨와 고랭지 밭 토사, 농약이 무분별하게 섞여 들면서 환경 문제가 커졌고 결국 2001년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 가뭄 사태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도암댐이 가두고 있는 3천만톤의 물이 재조명받으며 도암댐 활용론이 최근 수면 위로 올랐으나 수질과 수계문제 등을 이유로 정선·강릉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댐 인접 지자체인 정선군과 영월군은 비상 방류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 검증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검증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가뭄 사태가 장기화하자 김진태 지사 등 지휘부는 가뭄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제2청사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급수차 추가 지원, 지하수 관정 탐사 등 수자원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기존 투입된 500여대에서 강릉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100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 산림환경국 주관으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수 관정 탐사와 개발 등 수자원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김 지사는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마음도 타들어 가는 실정"이라며 "도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강릉시 가뭄 극복 하천수 취수 협조 추진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8월 30일 19시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평창군은 강릉시의 용수 부족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수 취수 협조에 나섰다.

평창군은 긴급 검토를 통해 오대천 진부면 호명리 892번지 일원 등 4개소를 취수원으로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 오대천의 하천유지수량은 하루 17,193㎥로 산정되었다.

이 가운데 최소유량을 초과하는 여수량은 259㎥/일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여수량 259㎥/일을 강릉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유량을 초과해 추가 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기존 하천수 사용 예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릉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평창군 건설과장은 “앞으로 평창군은 재난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강릉시의 가뭄 극복을 위한 하천수 취수 협조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강릉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가뭄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횡성군,제3회 공근 소(牛)맥축제 개막



횡성군 공근면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제3회 공근 소(牛)맥축제를 오늘(8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공근베이스볼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4면의 야구장과 축구장을 갖춘 공근베이스볼파크에서 열려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올해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공간 구성을 개선했다.

기존 파랗을 좌석을 대신해 선웨이 드문을 마련하고, 가족·친구 단위 방문객을 위한 캠핑테이블존을 신설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합합댄스 경연대회 ▲밴드 공연 ▲공근중학교 밴드팀

공연 ▲면민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는 한우 시식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단체와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해 향토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관내 기업도 우수 제품을 홍보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 소비가 지역 경제로 확산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

교통편의도 강화했다. 공근베이스볼파크 내 주차장 6개소와 임시주차장 3개소 등 총 38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시·대리비 할인쿠폰을 제공해 편리한 귀가를 지원한다.

고성군,‘독일 통일 포스터 전시회’개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과 독일 한스자이텔 재단은 9월 8일(월) 13시 통일전망대 2층 전시회장에서 '독일 통일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독포럼(한독협회·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과 연계한 DMZ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담은 롤 포스터 20점

이 전시된다.

전시는 이미 9월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사전 공개되어 호응을 얻고 있다. 개막식에는 한스자이텔재단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 하르트무트 코쾅 전 의원 등 독일 측 인사와 고성군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6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전시 관람을 함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2025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접수기간•

2025. 7. 30. ~ 9. 30.
(2025 행정사무감사 기간: 11. 6. ~ 11. 19.)

•제보내용•

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행정의 위법 부당행위, 주요사업 등에 관한 개선, 예산 낭비, 기타 불편사항 등

•제보방법•

• 도민제보서를 작성하여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 택일

- QR코드 접속
-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www.council.chungnam.go.kr)
- 방문 및 우편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담당자 앞)

•처리절차•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제보사항 회부 (의사담당관 → 상임위원회)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 제보사항 처리 및 위원 지정

③ 본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처리결과 통보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④ 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의사담당관 → 제보자)

* 채택시 격려금품 제공(1인 1개 지급)



QR로 제보하기

